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2.10	↑ 코스닥	718.29
	(+3.46)		(+0.33)
↓ 금리 (연율)	2.508	↓ 환율 (원/달러)	1449.85
	(-0.016)		(-19.85)



## 초개인화 vs 공감지능... 삼성·LG, 버티컬 AI 총망라

글로벌 IB, 기업여파 반영

### 올 韓 성장률 전망 평균 1.7%로 하향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기업여파에 따른 여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 IB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7%로 내려왔다.

지난해 11월 말 평균인 1.8%과 비교해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 탓에 10월 말 2.0%로 내려온 뒤, 12월 말까지 3개월째 하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한 달 사이 JP모건이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8개 주요 IB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12·3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위축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국제 IB 8곳, 한국 성장률 예측치  
지난해 11월 말 대비 0.1%p 내려  
JP모건은 내수위축에 1.3% 예상  
내년에도 평균 1.8% 성장률 전망

기업 사태 이후,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는 실제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관세 인상 가능성 역시 한국 수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평균 1.8%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전례 없다. 이른바 '그냥 뇌뒤편 저절로 GDP가 늘다'라는 잠재성장률 2%에도 계속 못 미치는 시나리오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4.9%에서 1999년 11.6%로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 0.8%에서 이듬해 7.0%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2020년 -0.7%에서 이듬해 4.6%로 회복한 바 있다.

내년 예측치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 2.1%, HSBC가 1.9%, 노무라가 1.8%, 씨티가 1.6%, 바클리가 1.5%, UBS가 1.3%를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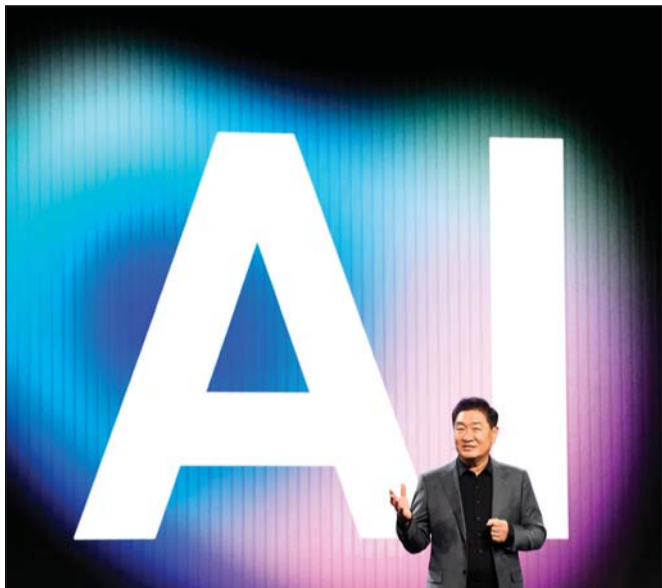
“몰입하라!(Dive in!)”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 2025’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CES는 전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10면>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올해 CES의 주제를 ‘몰입(Dive in)’으로 정했다. ‘기술로 연결하고(Connect) 문제를 해결하며(Solve)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Discover) 빠져들자(Dive in)’는 게 핵심 어젠더다.

올해도 CES는 인공지능(AI) 대전으로 꾸러졌다. 지난해 CES가 AI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더욱 구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방대한 영역에 적용해 상품화한 버티컬 AI를 망라했다. 버티컬 AI는 거대언어모델(LLM) 등 범용 AI 기본 모델을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고도화한 AI를 의미한다.

올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인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 초대형 규모로 부스를 꾸리고 CES 대표 테마인 ‘스마트 홈’을 선보였다. 스마트홈은 기존 사물인터넷(IoT)에 AI를 결합해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인 AIoT 기술을 이용해 집안 전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뜻한다.

◆삼성전자, 집안 기기 제어 AI 소개  
삼성전자는 CES 2025 개막에 한발



한종현 삼성전자 CEO 겸 디바이스경험사업부장이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기술 전시회에 앞서 삼성 기자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삼성, A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이용자 정보 반영, AI 경험 구현

LG, MS와 전략적 파트너십 통해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 구현 추진

앞서 6일 ‘CES 2025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홈 AI 비전인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을 주제로 홈 AI 비전을 공개했다.

홈 AI는 A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삼성전자제품을 포함해 300개 이상 파트너사의 제품들을 스마트싱스 내 100개 이상의 제품들을 연결성을 강화해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 AI 경험을 구현한다. 주거형태와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일상에는 물론 업무·여가 생활, 공간용도 및 사물까지 다양한 상황과 패턴을 구



조주완 LG전자 CEO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분해 초개인화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간 AI 기반의 ‘스마트싱스 앰비언트 센싱(Ambient Sensing)’ 기술을 소개했다. 앰비언트 센싱 기술은 연결된 기기들을 활용해 사용 패턴과 움직임, 주변 소리를 감지·분석한 것을 토대로 집안 정보를 요약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알림을 제공하고 기기를 제어하도록 제안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

◆LG전자, MS와 AI 홈 기술 개발

LG전자도 같은 날 ‘공감 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Life’s Good)’을 주제로 월드 프리미어를 열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총체적인 경험이야말로 공감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이자 다른 AI 기술과 구별되는 점”이라며 “LG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공감지능을 통해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완 CEO는 총체적 경험을 구현하는 필수 요소로 ▲커넥티드 디바이스 ▲유능한 AI 에이전트 ▲통합 서비스 등을 꼽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홈 기술을 더욱 고도화, 진화시킬 예정이다. LG전자가 집, 차량, 상업용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보유한 제품과 연계되는 고객 인사이트에 MS의 AI 기술을 결합해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며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면세점도 불황 그림자... 신세계계 免 부산점 폐점 수준

유커·파이공 줄고 경제불황 가중  
신세계계 免 부산점 특허권 반납 검토  
롯데 비상경영 등 업계 전반 위기감

면세업계 전반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부산점 폐점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7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권 반납을 검토 중이다.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유커와 중국 보타리상인 파이공의 방문이 줄고, 경제 불황이 가중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권 반납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신세계

검토 중”이라며 “관광객이 줄고,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브랜드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식적으로 폐점 공문을 내린 적 없다”며 “아직 특허권 반납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폐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점은 기정사실화라는 업계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의 특허권 반납 신청서 받아들여지면, 관세청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신세계면세점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면세 사업은 코로나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허가받은 영업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점 수준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오는 2026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어 12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운영 요일을 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불황에 따른 사업 축소 기조를 보여왔다.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면세업장 매각 수준까지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면세사업 불황의 모습이 신세계면세점 뿐만 아니라, 면세업계 전반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발렌티노가 철수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6월 롯데 자회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8월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지 2달 만이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메트로 한줄뉴스



▲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 고발... “대통령경호처, 상설특검 방치” /사진 뉴시스  
▲ 현재 사무처장 “재판부,尹 내란죄 제외 권유 사실 아냐”

▲ 국힘,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  
▲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요구

▲ 홍준표 “내란죄 철회...尹·한덕수 탄핵 모두 기각해야”  
▲ 최 대통령 대행 “北 도발,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